

광주 지하철 공사장 인근 주택 담장 균열... 불안 호소

대문 붕괴 등 피해... 6명 대피 주민 "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어" 공사 이후 민원 총 2846건 접수 도시철도본부 "주택 노후" 주장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대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서웠어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4곳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는 대문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6명이 인근 임시거처로 긴급 대피했다.

22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당시의 긴박함과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남원(75)씨는 "갑자기 굉음이 들려 매우 놀랐다. 또 다시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현장 일대에서는 아스팔트 도로와 건물 외벽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무너져 내려버린 구조물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임시 수습이 된 상황이었지만, 언제 사고가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22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 단독주택 4곳의 외벽과 대문 등에 균열이 발생했다. 사진은 대문 위 붕괴를 막기 위해 철구조물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 김양배 기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으로 사고가 난 주택 뿐 아니라 주변 건물 등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근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업주들은 매장 내부의 지반침하, 누수흔적, 균열 등을 보이며 건물 내부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정아(53)씨는 "큰 사고가 일어날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 지하철 공사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천장의 균열 때문에 무너질까 두려워 항상 머리를 감싸고 지나다닐 정도"라며 강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업주의 경우 직접 장판을 깔

질라 금이 간 바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철승(61)씨는 "지하철 공사를 시작한 후로 벽이 다 갈라지고 문도 닫히지 않는다"며 "단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접

수되는 건물 피해는 비단 사고현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찾은 동구 지산동에서 만난 주민들도 공사 현장과 인접한 건물이 흔들리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 매일 흔들리고 장마철에는 누수로 고생하고 있다"며 "시청에도 민원을 넣어 시공사를 만나 조치를 받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된 이후 광주시에는 관련 피해 발생 민원이 총 2846건 접수됐다. 최근 3년 기준 2022년 588건, 2023년 594건, 2024년 6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본부와 북구 등은 중흥동에서 발생한 건물 균열 사고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추가 피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기관에 의뢰를 맡겨놓은 상태.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도시철도 공사의 영향보다는 주택의 노후화가 주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출소 한달만에 범행 반복한 5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취업 사기에 인질 강도, 절도까지 1심 15년형에서 2심서는 2년 감형 10년간 전자팔찌 부착 명령

출소 직후 취업을 미기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 중에 강도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강도·도주치상·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형량을 감경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 사기와 차량 절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할 사정으로 본다"며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6월30일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 350여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반지 등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5월에는 자신이 기업 노조 위원장과 친분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자녀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총 3100만 원을 편취했다.

이후 도피 중에는 PC방에서 현금과 신분증이 든 가방을 훔쳤고, 충남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키를 훔쳐 무단으로 운전하

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12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고,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에는 수감 중 알게 된 지인에게 절강회사 대표를 사칭했다. 계좌 확인을 빌미로 세 차례에 걸쳐 약 49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과거 특수강도 등으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4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도피하던 중에 광주의 한 PC방에서 도박으로 인해 돈이 없자 종업원을 인질로 삼아 강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 7억 빼돌린 경리... 추징보전 명령

법원이 아파트 관리비 수익 원을 빼돌려 검찰에 넘겨진 경리 직원의 재산 85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22일 광주 광안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수익 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재산 8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홀로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추징보전 명령 금액은 아파트·오피스텔 총 2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등 8500만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조사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은 A씨의 명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85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

아파트에서 25년간 홀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관리비 처리 업무가 시작된 이후 37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억원의 관리비를 더 빼돌렸다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등을 분석해 정확한 횡령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준준 기자

신호위반 좌회전하다 보행자 덮친 택시기사 입건

광주광역시에서 택시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 중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

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도로에

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에 의해 한 차례 더 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승우 기자



22일 오후 5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광주 서부소방 제공

광주 서구 아파트서 불... 입주민 자체 진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입주민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22일 광주 서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1분께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입주민에 의해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이 불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김치냉장고 일부가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목포 해상에 폐기물 무단투기한 70대 선원 입건

목포 해상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7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목포해경은 폐기물을 해양에 무단 투기한 혐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목포 남항부두 인근에 정박 중인 500톤급 부선에서 용접 작업 등을 통해 발생한 폐철가루와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5kg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포구 순찰에 나선 해경은 A씨

의 불법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포착해 적발했다. 해경은 A씨와 선박 운행사 등을 상대로 폐기물 투기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